

<나의 삶 나의 하나님> **엄마의 도시락**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영희는 무거운 도시락 걱정에 마음이 어두웠다. 오늘 도도시락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온다고.. 엄마의 꾸증을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영희는 지레 엄마의 잔소리를 떠올리고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속마음 같 아서는 도시락의 남은 밥과 반찬을 어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다 쏟아 버리고 싶었다. 영희는 살며시 도시락을 식탁 밑으로 밀어 넣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건너왔다.

"오늘도 도시락을 다 먹지 않은 모양이지?"

"그게 아니고 엄마, 선주가 오늘이 제 생일이라고 피자를 사주어서..."

영희는 제 책상 위에 가방을 놓아 두고 나오다가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볼품없는 네모난 양은 그릇을 보았다. "엄마, 이게 뭐예요?" "으응 엄마가 학교 다닐 때 벤 또라고 하던 엄마 도시락이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쓰던 것을 시집 올 때 가지고 왔 지."

"영희야! 오늘은 병원에 계시는 외할머니한테 함께 가보자. 의사 선생님이 얼마 사시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구나." 영희는 병원이 싫지만 외할머니께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말에 놀라서 아무런 대꾸 없이 엄마를 따라 나섰다.

"영희야, 이야기 하나 해줄까? 그러니까, 벌써 삼십년도 훨씬 넘었구나."

"어린 딸과 어머니가 사는 셋방은 독방 가에 있었다. 어머니가 다니는 시멘트 벽 돌 찍어 내는 공장이 가까이에 있어서 이사한 곳이었다. 어머니는 해 뜨기 전부터 벌써 일터로 나가곤 했다. 새벽 밥을 해서 몇 손갈 들고 일터로 나가 머리로 시멘트 벽돌을 이어서 차에 실어 주는 일을 했다. 어떤 날은 먼 데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까지 날라다 주기도 했다. 그리고는 밤이 늦어 새끼줄에 연탄 몇 장을 꿰어 들고 오기도 했고 봉지쌀을 사서 안고 오기도 했다.

그 해, 큰 걱정거리가 모녀한테 찾아왔다. 시멘트 벽돌 공장 주인이 빛에 쪼들려 밤 사이에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의 품삯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끼니를 걱정했다.

그날도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지었다. 그리고는 여느날과 다름 없이 도시락 들을 싸다. 딸은 그날이 마침 당번이어서 도시락을 엄마보다 먼저 챙겨 들고 집을 나왔다.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을 무심히 열던 딸은 황급히 도시락 뚜껑 을 닫아 책상 속에 밀어 넣고는 밖으로 나왔다. 목이 말라서 수돗가에서 물을 받아 마셨다. 물은 그대로 눈물이 되어 버렸는지 눈으로 펄펄 쏟아져 나왔다. 딸은 이내 교문을 헐레벌떡 들어오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손에는 일터로 들고 나간 딸의 것과 같은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딸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그치지 않는 울음을 울 수 밖에 없었다.

영희는 엄마한테 물었다. "엄마, 그 도시락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가 차창 밖으로 얼굴을 돌린 채로 대답했다. "하얀... 하얀 행주가 들어 있었다. 밥이 아니라 행주가 든 도시락이었어. 시멘트 벽돌을 머리에 이어서 나르는 일을 하는 어머니는 딸한테는 밥이 든 도시락을 들려 보내고 당신은 밥 대신 행주 를 담아서 들고 다니신 거야."

영희는 엄마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는 병원에 닿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했 다. (☞광고면으로 계속)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QT하는 갈보리교회'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3권 1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5월 13일
☎269-8677/021-292-1639, ☒10 Bur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어머니를 떠나 보내며** -김영길 집사-

양지바른 곳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릴적 어머니와 이야기 나누던 곳이지요.

고운 흙을 어머니 몸에 뿌리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때문에  
앞이 뿌옇게 흐려져 왔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아버지 곁에 누워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주고 받으시겠지요.

어느 봄날 아지랑이가 저 밑 신작로에서  
아롱거리며 피어오를 때, 끝 모르게 푸르른 봄 하늘이  
펼쳐진 저편에서 종달새 소리 아련히 들릴 때,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다보던 그곳.

세월이 훌쩍 흘러 30년이 지나버렸지만 그곳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곁을 떠나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다시 찾아올게요.... 아버지도 계시니 외롭진  
않으시지요? 안녕히 계세요. 많이 그리울 거예요..."

산을 내려오며 자꾸만 되돌아 보게 되는 건  
이제 언제나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면서 금방이라도 웃음띤 어머니의 모습이  
날 반길 것 같았습니다.

텅빈방에 외로운 어머니 사진만이 내 가슴을 메웁니다.  
이 외로운 공간에서 어머니는 나를 또 얼마나 그리워  
하셨을까요..

돌아가기 이를 전에 내가 보고싶다 하셨다는데...

또다시 흐려지는 시야에 어머니의 사진이 흔들려왔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내마음에 묻어두어야 할까봅니다.

언제까지나...

(위의 글은 지난달 어머님 장례식을 마치고 보내온 김영길 집사의  
글입니다)

## 주 일 예 배 (어버이주일)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 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50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72(어버이주일)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04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최재학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어머님의기도'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음동성 목사
찬 송 Hymn	98장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5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time봉사	안내: 김교섭
5/ 6	지찬영	최재학	김종건, 지찬영	박영태, 정의령	최윤희, 송정섭
13	최재학	최윤희	박영태, 정의령	변지웅, 신선숙	최재학, 노은숙
20	한 건	지찬영	박영태, 박정자	윤한나, 손정훈	김종건, 지찬영
27	한은영	조순정	변지웅, 신선숙	이경석, 한은영	박영태, 정의령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예배 12:00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일새벽기도: 6:00
------------	---------------	---------------

- 교 회 력**
- 성경완독 1년
    -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 이사야(2): 1명. 예레미야(1,2): 1명.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1명
  -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청년부에서 꽃을 준비하였습니다
  - 이번주일까지 Hall을 사용할 수 없어 예배 후 Tea Time을 갖지않습니다
  - 연합부흥회: 오늘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 \*내일은 우리교회에서 갖습니다. 저녁 7:30
    - \*강사: 음동성 목사(서울 동교동 교회) \*시간: 저녁 7:30
    - \*장소: 13일(주일)샘이깊은교회/ 14일(월) 갈보리교회/ 15일(화)임마누엘교회  
16일(수) 주님의교회
  - 금주 수요일예배: 연합부흥회로 모입니다(주님의 교회)
  - 교회청소: 주일 준비를 위한 교회내부청소를 본교회와 함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담당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등록하심을 교우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 \*인치혁, 김정미 집사, 해림, 서지혜, 윤수지(조카)
- ☎ 826-5582 ☒ 19 Melview Pl. New Lynn. (e-mail) chi\_nz@yahoo.com
- 8.5월의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6일	어린이주일 세례식	세례문답(5일 저녁 6시)
13일	어버이주일	
27일	이삭줍기봉헌	

\*\*\*\*\*

**(나의 삶, 나의 하나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자복을 입은 앙상하게 마른 외할머니가 영희와  
엄마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손수건에 쓴 양은 도시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어머니, 이 양은 도시락 생각나세요?"

외할머니가 가만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영희는 보았다.

"어머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딸기 담아 왔어요."

영희는 고개를 돌렸다.

창에 놀이 빨강게 물들어 있었다.